

지역 소식통

정읍시 소통의 날... 선거 중립·AI 행정 혁신 강조

정읍시는 11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이학수 시장은 지난 2월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비상근무 등 현안 업무에 매진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더불어 민선 8기의 성과와 향후 시정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이 시장은 해빙기를 맞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모든 부서가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언급하며 공직자의 철저한 정치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준수를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봄철 산불 예방 활동을 비롯해 정읍 풍화마라톤대회와 뱀축제 등 지역 주요 행사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빈틈없는 사전 준비도 함께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해상풍력 이익공유 기초 모델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부안군은 지난 10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해상풍력 이익공유 기초모델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따른 지역 이익공유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시범사업(400MW)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내외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사례 분석과 주민 참여 이해관계자 범위 및 이익공유 기초 모델 분석 결과에 대한 용역사의 보고가 이뤄졌다.

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발전사업자 협의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전 주민 바람소속 실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청년합성 패키지 사업 참여자 모집

고창군, 청년 지역정착 지원·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청년활력수당 지원

고창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합성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합성 패키지는 청년의 지역정착, 자산형성, 구직활동 지원을 연계한 종합 지원사업으로 △청년 지역정착 지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청년 활력수당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고창군은 올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3명의 청년을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 지역정착 지원'은 지역에서 근로하거나 창업한 청년들이 안정적

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6명을 선정해 12개월간 30만원씩 최대 36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창군은 올해 30명의 청년을 선발해 2년 만기 시 최대 50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활력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6개

월 간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수당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올해 고창군에서는 37명을 선정해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3개 사업 모두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 중이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은 고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군은 이와 같은 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낙후된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고리포 어촌뉴딜300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고리포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 개최

고창군, 낙후된 어촌 정주 여건 개선·활력 제고 기대

고창군이 낙후된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고리포 어촌뉴딜300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고리포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에는 고창군 부군수,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상하면 기관·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리포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과 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되어 과거 낙후되었던 이미지를 벗고 현대적인 어항으로 탈바꿈했다.

주요시설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휴락체험센터 △어업 편의를 위한 어구보관고 △어촌계사무실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 △노후포구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환경도 대폭 개선되었다.

이날 준공식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짐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증축 완료... 준공식 개최

쾌적한 여가 공간 확충·복지 환경 개선... 활기찬 어르신 노후 지원



정읍시가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북부노인복지관 증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11일 오전 11시 현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준공식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지역 시의원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인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단장한 복지관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은 그동안 이용 어르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주요 시설의 공간이 부족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쾌적한 복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 4억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시비 4억원을 더해 총 11억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번 증축 공사를 통해 143㎡ 규모의 경로식당을 비롯해 84㎡의 당구장, 41㎡의 소강당 등 총 268㎡ 면적의 시설이 새롭게 확충됐다. 이를 통해 기존의 좁았던 공간 문제가 해결되고 어르신들이 한층 여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준공식 당일에는 복지관 후원금으로 마련된 특별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 측은 약 300명의 어르신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으며, 이학수 시장도 배식 봉사에 나서며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한편,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및 건강 관리, 사회 참여 프로그램과 경로식당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5년 단체·2026년 임금협약 체결

부안군-전국공무직노조 부안군지부, 기본급 2.77% 인상 등 합의

부안군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부안군지부(이하 공무직 노조)는 지난 10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말순 부안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단체 및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체협약 사항은 질병휴직 급여 지급, 질병휴직 기간 연장, 공무원 동일 특별휴가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임금협약으로는 각 직종 및 직급에 따라 전년 대비 기본급 2.77% 인상, 호봉구간, 정액급식비 인상 등의 내용으로 최종 합의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협력이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노동조합 측에 감사드



린다"며 "앞으로도 군과 노조가 소통하고 연결해 군정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말순 지부장은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애써주시는 군 관계자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통 기반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모집

최대 1억 1000만원 지원... 31일까지 신청

정읍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31일 오후 2시까지 관광두레사업에 참여할 신규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

시와 관광공사에 따르면 신규 선정 지역 5곳(울산 중구 등)과 기존 선정 지역 16곳 등 전국 21개 기초지자체에서 50개 내외의 주민사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정읍시는 부산 수영구, 광주 남구 등과 함께 기존 선정 지역에 해당된다.

지원 자격은 해당 지역에서 관광 관련 창업을 계획 중이거나 기존 사

업체의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주민사업체다. 단, 정읍지역 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체여야 하며 식음료, 여행, 숙박, 체험, 기념품 등 관광 관련 분야가 대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사업체는 정읍 관광두레 PD 상담을 거쳐 관광두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시 최장 5년간 최대 1억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성장 단계 별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창업·경영 개선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해 전문가 컨설팅, 파일럿 사업, 홍보 마케팅, 법률·세무 자문 등 실무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1월 관광두레 신규 지역으로 선정(관광두레 PD 백정록),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3개 사업체를 발굴해 법인 설립 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와 관광공사는 신규 사업체 모집과 관련해 23일 오후 1시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1층에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광두레 누리집과 한국관광 산업포털 투어러즈, 정읍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